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3. 가을호

170

9 772765 298008 33
ISSN 2765-298X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3년 가을호 통권 170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종기
발행일 2023년 11월 23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유반야(내부) 김현지 이가영 이지혜 정재운(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페이스북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펴내면서

2023년 평화를 주제로 봄호부터 소식지에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한 해 주제를 평화로 잡은 것은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올해 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름호에 실은 것처럼 평화와 전쟁, 안전과 불안 등이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소식지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조금 늦게 발행하는 가을호에서는 우리 지역, 부산의 평화에 집중해보았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오염수 방류 이후인 현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해봅니다. 부산시 기장군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한눈에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들. 부산과 인근 지역에 핵 관련 시설 현황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자주와 평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주평화길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기획전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도 지상중계합니다.

제44회 부마민주항쟁을 맞아 연 기념행사들도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제32회 민주시민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와 학술대회, 순회전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짧은 가을을 지나 어느새 겨울의 문턱을 넘은 듯합니다. 소식지 『민주공원』을 보시는 모든 분의 하루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라며 가을호를 펴냅니다.

▲ 표지 : **이철수_윤회 2**_1990_목판채색_35×36_290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전시 섹션 2 민중미술의 현장 / 식민지구 2023 – 먹힐 듯 말 듯 ▶

목 차

04 **4대항쟁**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제32회 민주시민상

10 **민주공원**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❼ – 금정구·동래구 길 _정다솜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민주공원 길라잡이 ❸ 민주공원 속 부산 이야기

24 **주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바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 _김해창

부산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핵발전소 _최인화

'자주평화올레길'을 걸으며 외세가 부산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다 _이원규

34 **기억에서 기록으로** 그해 여름 난, 부산민주공원 기록실에서
《부산지역 노동운동사》 집필을 시작했으니... _이광수

38 **민주사랑방**

40 **민주알림방**

10.16
제 44주년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서슬 퍼런 유신독재에 맞서
억눌린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학생,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 열망으로 피워낸
뜨거운 민주화의 불꽃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열린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은 '시월의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주제로 10월 16일(월) 3.15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화에 큰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의 흐름 속에서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 이후 가장 범시민적인 시민항쟁이었으며 이후 이어진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항쟁 참여자였던 최진아 님, 마산 항쟁 참여자였던 신정규 님, 계엄군이었던 김광호 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과보고를 구성하여 배우들의 재현극과 춤, 노래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고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곡가 강유의 지휘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그날의 새벽 아침을 표현한 부마 헌정 관현악곡 '동트는 새벽벌'의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4번째로 열린 국가기념식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참석하여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였습니다.

민주항쟁 기념 학술사업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민주항쟁 기념 학술심포지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헌정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11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유라시아 플랫폼 104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은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이 '부마민주항쟁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 고찰'을 발표했습니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성기 경남대학교 K-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형기 장로교회 목사,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이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 진행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 - 일, 꾼, 몸 시대를 그리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울산노동역사관1987이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일깨우는 순회전시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 - 일, 꾼, 몸 시대를 그리다>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중미술 주제 소장작품 37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소장작품 1점(곽영화), 작가 소장작품 2점(곽영화, 박경효)을 비롯 총 40점의 민중미술 작품을 펼쳐 보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 전시를 시작으로 9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울산노동역사관1987 전시를 마치고 12월 12일(화)부터 24일(일)까지 부산민주공원에서 순회전의 마지막 여정을 펼칩니다.

◀ **신학철_유월항쟁도**_94×245cm_천에 목판화_1999

제32회 민주시민상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제32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을 10월 16일 저녁 7시 부산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열었습니다. 민주시민상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 · 계승하기 위해 1992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으로는 유일합니다.

1992년 제1회 민주시민상 시상부터 민주, 인권, 평화, 환경, 통일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나, 최근의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 이슈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지난해까지 26명의 개인과 27개의 단체에 민주시민상을 시상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11일(화)부터 9월 8일(금)까지 홈페이지,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민주시민상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시민상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안승운)의 심의를 거쳐 올해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단체 부문에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개인 500만원, 단체 1,000만원)했습니다.

제32회 민주시민상 수상자인 하원오 의장과 비주류사진관의 뜻을 담은 "농민이 살맛 나는 세상", "더 낮은 사회 속으로"가 적힌 수건을 현수막 삼아 펼쳐 들고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축하 공연은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이 맡았습니다.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민주세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우창수 선생이 선창한 농민가를 다 함께 불렀습니다. 시상식 전에는 역대 민주시민상 수상자들이 모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올곧게 계승하며 다양한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 민주시민상
개인 부문

농민이 살맛 나는 세상

하원오

제32회 민주시민상 개인 부문 수상자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입니다. 하원오 의장은 경작지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낙동강 주변 농민들과 함께 조직한 <부산시농민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의 직을 거치며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투쟁,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투쟁 등 민족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전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무상급식살리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대우조선 동종사매각' 저지 투쟁, 진해 세균실험실 공론화 등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선두에 서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원오 의장은 수상소감으로 "오늘 이 상을 계기로 더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데까지는 진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하고 특히 농민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운 것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물론 힘든 줄은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큰 상을 받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더 큰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 민주시민상
단체 부문

더 낮은 사회 속으로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

제32회 민주시민상 단체 부문 수상자는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이하 비주류사진관)입니다. 비주류사진관은 우리 사회 전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집회 및 투쟁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함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의 더 행복한 삶과 환경 및 생태의 보존 등 더욱 진전된 민주사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765kV 밀양송전탑 반대투쟁과 함께한 <밀양 고백전>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생탁·택시 노동자 농성,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등 탈핵 운동,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김용균 노동자 추모집회, 신라대 청소노동자 투쟁 등 모든 주요 투쟁 현장을 누비면서 2023년 10월 현재까지 27회의 현장 사진전, 온라인 사진전 등을 개최해왔습니다.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 정남준 대표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존재 가치, 생명 생태의 가치를 사진으로 담아서 시대의 정중앙으로 세우고 싶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비주류사진관입니다. 큰 상과 함께 상금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전국에 투쟁하며 목숨 걸고 싸우고 계시는 동지들과 나눠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정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사진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시민상이 더욱 빛이 나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

회차(연도)	성명 / 단체
1회(1992)	• 권정시(함께 만드는 건강한 일터 연구사무소 소장)
2회(199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윤부한)
3회(1994)	• 늘푸른남구시민모임(해산)
4회(1995)	• 손미희(부산민주청년회 회장)
5회(1996)	• 이세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6회(1997)	• 정귀순(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7회(1998)	• 안하원(부산지역 실업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8회(1999)	• 이정이(부산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회장)
9회(2000)	•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0회(2001)	• 고창권(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대표)
11회(2002)	• 강한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2회(2003)	• 한석우(부산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
13회(2004)	• 부산여성회 • 노호성(민간공동체 푸른마을 사무국장)
14회(2005)	•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 최수연(우리누리공부방 원장)
15회(2006)	• 부산지하철매표소해고노동자현장위원회(해산) • 박주미(민주노동당 중앙위원)
16회(2007)	• 부산청년회(해소) • 김진숙(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7회(2008)	• 부산생명의전화 • 신태섭(전 동의대교수)
18회(2009)	• 부산민중연대 • 최현오(6.15울산본부 상임대표)
19회(2010)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 김영만(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20회(2011)	• 청소년희망공동체 숲 • 한진중공업 가족대책위원회 • 최보경(간디학교 교사) • 최수영/이환문(함안보 고공농성자)

회차(연도)	성명 / 단체
21회(2012)	•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 이갑호(쌍용차 창원지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22회(2013)	• 희망세상 •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 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23회(2014)	• 부산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 신라대현장위원회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회(2015)	• 부산YWCA • 한국전쟁전후진주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25회(2016)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26회(2017)	• 김봉대 •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27회(2018)	• 故 윤일성 부산대학교 교수
28회(2019)	• 감만동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대책위
29회(2020)	• 김평수 • 부산여성단체연합
30회(2021)	• 박영순 • 신진문화예술행동 흥(해산)
31회(2022)	• 진병찬 •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❼ – 금정구 · 동래구 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길

정다솜 | 부산민주공원 문화예술교육

금정중학교 신정륭 열사 추모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금정도서관 앞 신정륭 열사 추모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 금정도서관 앞

신정륭 열사는 1941년 금정구 노포동에서 태어나 청룡초등학교와 금정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60년 4월 19일 그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수많은 부산시민들과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졸업한 금정중학교와 금정구에 위치한 추모비는 민주화에 대한 젊은 청년 신정륭의 열망을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산수 이종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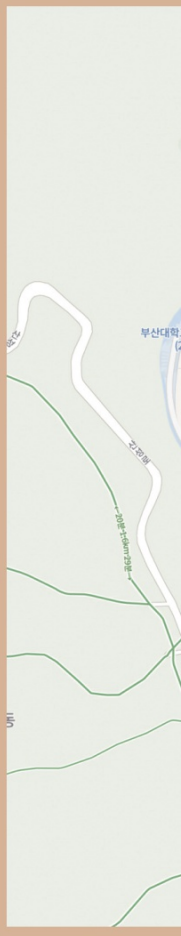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민족혁명가 이종률 선생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부터 해방 이후 단독정부 반대투쟁, 4 · 19 혁명 시기 자주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혁과 진보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생전 그가 재직하였던 부산대학교에 이종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비를 세워 그의 위대한 뜻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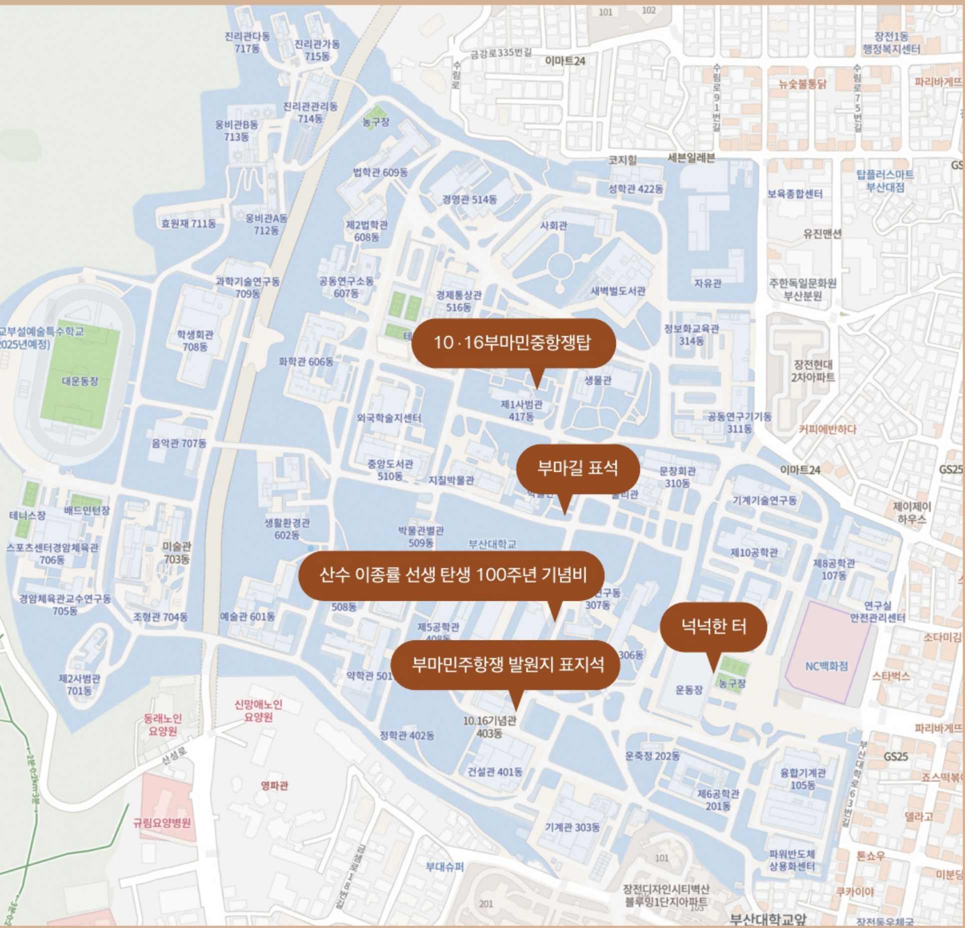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0 · 16기념관 옆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이 있는 장소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부산대학교의 옛 도서관이 있던 곳으로, 당시 이곳에 모인 많은 학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한 후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항쟁을 기념하고 그 뜻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발원지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신정륭 열사 추모비
신정륭 열사 추모비
달마의집 전시관
임진각식당
청룡동오펠리움
영락공원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얼크니손칼국수
현대오일뱅크
금샘다방
청룡자동차 정비공업사
범어사역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원조동촌칼국수
금정중학교
현대오일뱅크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불교 문화원
우체국365
부산은행
범어지구대
현대그레이스 아파트
OUT코스


10·16부마민중항쟁탑
부마길 표석
산수 이종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비
넉넉한 터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진리관다동 717동
진리관가동 715동
진리관관리동 714동
웅비관B동 713동
이마트24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법학관 609동
경영관 514동
성학관 422동
효원재 711동
웅비관A동 712동
제2법학관 608동
사회관
유진맨션
과학기술연구동 709동
공동연구소동 607동
경제통상관 516동
새벽벌도서관
자유관
주한독일문화원 부산분원
학생회관 708동
정보화교육관 314동
대운동장
화학관 606동
생물관
장전현대 2차아파트
제1사범관 417동
외국학술지센터
공동연구기기동 311동
음악관 707동
중앙도서관 510동
지질박물관
문창회관 310동
이마트24
기계기술연구동
생활환경관 602동
박물관별관 509동
부산대학교
미술관 703동
제10공학관
제8공학관 107동
스포츠센터경암체육관 706동
경암체육관교수연구동 705동
조형관 704동
예술관 601동
제5공학관
NC백화점
제2사범관 701동
약학관 501
운동장
농구장
동래노인 요양원
신망애노인 요양원
10.16기념관 403동
정학관 402동
운죽정 202동
건설관 401동
융합기계관 105동
제6공학관 201동
영파관
규림요양병원
기계관 303동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부대슈퍼
장전디자인시티벽산 블루밍1단지아파트
부산대학교앞

※ 네이버 지도 참조

사진 위에서부터▶

- 금정중학교 신정륭 열사 추모비
-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 부산대학교 10·16부마민중항쟁탑
- 동래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마길 표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대학교 내에 부마길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부마길 표석에는 항쟁이 시작되었던 10월 16일을 의미하는 숫자 10, 16과 힘차게 펼쳐진 날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날개를 달고 멀리까지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10 · 16부마민중항쟁탑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새벽벌도서관 앞

부산대학교 새벽벌도서관 앞에는 10 · 16부마민중항쟁탑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9주년을 맞이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운 이 탑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최초의 기념물로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성금을 모으고 미술대학 학생들이 디자인하여 세워졌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큰 기념물입니다.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옛 운동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위를 시작한 학생들은 '유신철폐'를 외치며 운동장으로 나아가 정문을 통해 밖으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문 밖에 있던 전투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학교 안을 들어왔고, 학생들은 흩어져서 바로 옆 사대부고(현 항공관)과 정문(현 무지개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온천교사거리 – 동래경찰서 – 부산교대사거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연제구

부산대학교에서부터 시위를 이끌어가던 부산대학생들은 온천장 방향으로 향해갔습니다. 어깨동무를 한 채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를 외치며 행진하는 학생들에게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온천교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진압부대와 마주친 학생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양 옆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갈래로 흩어진 학생들 일부는 명륜동 가구거리를 지나 거제 방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행진 도중 동래경찰서 앞을 지나게 된 학생들은 두려움에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부산교육대학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부산교육대학 사거리에는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전투경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고, 방어선을 뚫지 못한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시내에서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동래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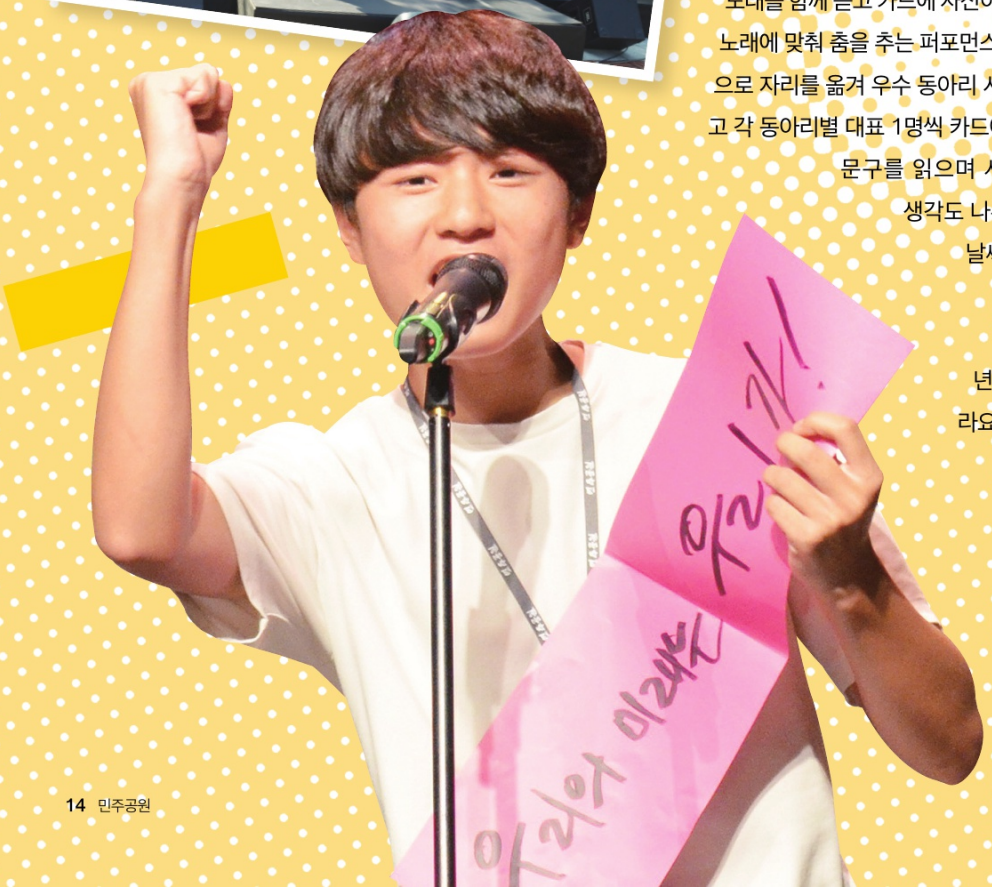
1960년 4월 18일 오전,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은 겹겹이 쳐진 경찰 방위선을 뚫고 온천장과 범일동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항거한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거는 부산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학생운동으로 부산 4 · 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8월 26일(토) 뜨거운 여름날, 무더위에도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민주공원에 모였습니다. 영화, 음악, 토론, 풍물, 자주통일, 식물생태, 역사, 평화, 연극 등등 다양한 주제의 15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직접 부스를 꾸미고 운영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개막식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제작한 영화를 보고 문제를 푸는 부스, 역사 보드게임, 디폼블록으로 5·18민주화운동 상징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 OST를 다양한 악기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작곡을 만든 밴드동아리에 노래를 함께 듣고 카드에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적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큰방(중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우수 동아리 시상을 하고 각 동아리별 대표 1명씩 카드에 적은 문구를 읽으며 서로의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즐거움을 함께하고 생각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민주주의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무장애
체험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

– 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9월 15일(금)부터 12월 3일(일)까지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잡은 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민주공원과 사비나미술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을 포함한 민주항쟁기념관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공존, 공생의 가치와 생태계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천 방안을 표현하는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미디어, 입체,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인간에 의한 환경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동물과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대미술가 고상우, 금중기, 김장겸, 플로라 보르시(Flora Borsi)가 전시에 참여하며 21점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색 사진의 선구자'로 알려진 고상우는 야생동물의 모습을 디지털 회화로 표현합니다. 그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몸에 하트를 새기며 동물이 인간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두 생명체 간의 상호 존중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금중기의 입체 작품 속 동물들을 본래의 자연색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표현됩니다. 인공적인 동물 조각품은 인간 활동과 기술문명의 발전이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파괴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김창겸은 전통 문양의 꽃과 동물 형상을 3D 애니메이션 영상, 오브젝트를 결합해 도상화한 만다라 우주를 창조하며 인간과 멸종 위기 동물이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치유의 미술을 선보입니다.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구현한 만다라 화는 인간과 자연, 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주의 상징이자 궁극적으로 생명의 상징인 정신적인 힘과 내면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플로라 보르시의 작품에서 감상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동물과 눈을 맞추거나 그와 반대로 동물이 주체가 되어 인간과 눈을 맞추는 경이로운 순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특징을 하나의 자화상에 결합한 플로라 브로시의 작품은 동물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두 생명체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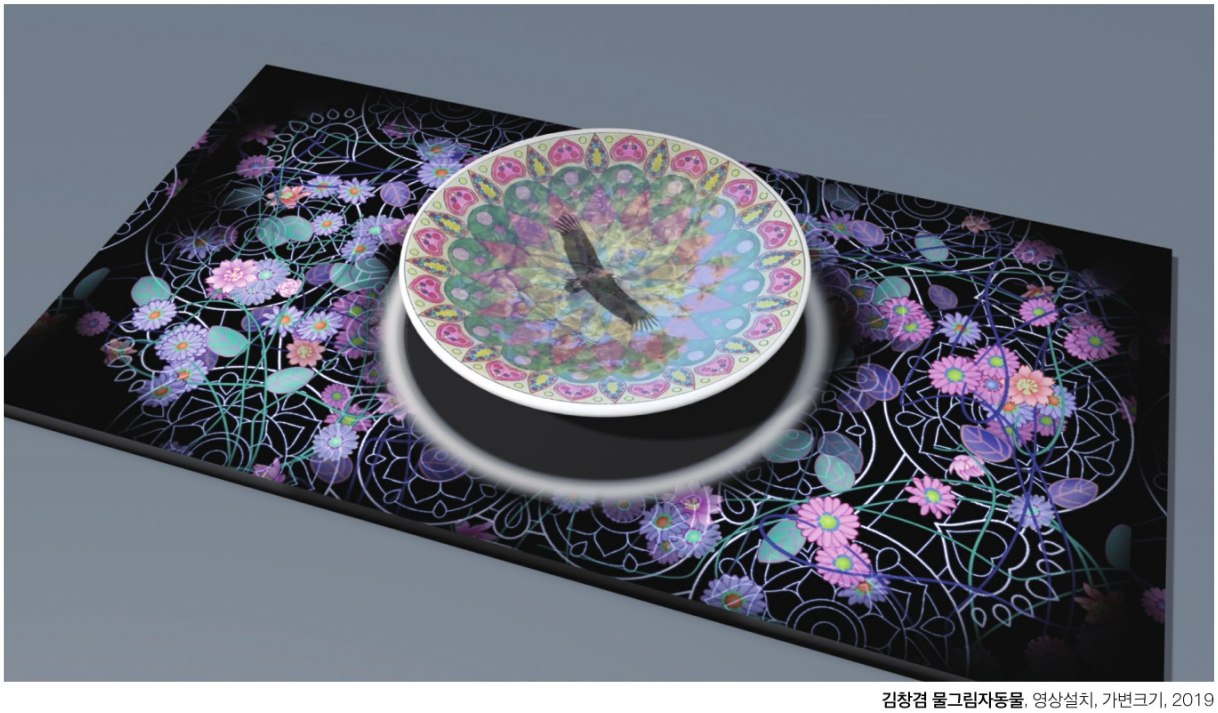
전시가 열리는 기간 중 9월 19일(화)부터 11월 26일(일)까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인 <기획전시해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와 인간과 동물의 공존, 자연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인 <드로잉 체험-Anamal Together>를 진행합니다.

고상우 숙명, 울트라크롬HDR잉크젯프린트, 150x150cm, 2022

고상우 운명, 울트라크롬HDR잉크젯프린트, 150x150cm, 2020

금중기 공감, F.R.P에 우레탄도색, 65x70x80cm, 2008

김창겸 만다라 안의 삶,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9



김창겸 물그림자동물,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9

플로라 보르시 Flamingo, 울트라크롬 PRO 프린트, 150x150cm, 2016

플로라 보르시 Little Puffin, 울트라크롬 PRO 프린트, 150x150cm, 2019

민주공원 길라잡이 ❸

민주공원 속 부산 이야기

민주공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한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삼고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인 1999년 10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민주공원은 민주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화공간으로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며 민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희망찬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공원 곳곳에서 부산의 역사와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길라잡이 세 번째 순서로 민주공원 속 부산 이야기를 지면에 소개합니다.

부산 지역 민주열사의 넋을 기리는 늘빛드레

2022년 6월, 6월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이 부산지역 6월민주열사인 박종철, 황보영국, 이태춘 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벽을 민주공원 넋기림마당에 조성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추념의 의미와 함께 '계승', '존경'의 의미를 담아 '늘빛드레'라는 순우리말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대학 재학 중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받아 1월 14일 숨졌습니다. 황보영국 열사는 1987년 5월 17일,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 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민주 헌법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부산상고 인근에서 분신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한창이던 6월 18일, 지금은 없어진 좌천동 고가도로, 이른바 '오바브릿지'에서 시위에 참여 중이던 이태춘 열사는 경찰이 난사한 최루탄에 맞아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한 후 숨졌습니다. 6월 18일은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늘펼쳐보임방

민주항쟁기념관의 상설전시실인 늘펼쳐보임방 입구 오른쪽 벽에는 부산시 지도가 있습니다. 부산의 민주항쟁터 길눈이로 부산 지역 곳곳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내가 오가는 지역 어느 곳에 민주항쟁의 현장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수도 있어요. 길눈이를 따라 들어서면 1945년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가 펼쳐집니다. 연표 중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강조해놓았습니다.

늘펼쳐보임방 안쪽에는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의 흔적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협동서점'이 있습니다. 부산양서협동조합은 "좋은 책을 통해서 지적 ·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하고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면서 사회의 어둡고 병든 곳을 개혁하여 참다운 인간애가 넘치는 복지 부산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적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몰려 해산되었습니다. 늘펼쳐보임방 안 협동서점에는 부산양서협동조합은 물론 전국의 양서협동조합 관련 사료와 당시 읽었던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부산항과 산복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바람마당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과 만인의 인권 존중과 평화를 염원하는 곳으로, 바다가 품고 있는 부산항과 부산시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산 산복도로 조망 9경 중 한 곳입니다. 옥상 전망대 나무 덱을 올해 정비하여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망원경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어린이도 편하고 안전하게 망원경을 볼 수 있어요!

바람마당에서는 부산 전경뿐만 아니라 민주의 횃불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횃불 형태의 조형물인 민주의 횃불은 내부에 수많은 반사재질의 작은 조각을 설치하여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이름 없는 별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의 횃불을 통해 안팎이 하나가 되며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바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

김해창 |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일본이 지난 8월 하순 후쿠시마 오염수 1차 해양방류에 이어 10월에 2차 해양방류를 했다. 10월 23일까지 1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총 7,800t(일일 460t)을 방류했다.

경향신문(2023년 10월 16일)은 '일본 '오염수 2차 방류' 일주일 만에 삼중수소 4차례 검출'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2차 해양방류 이후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방류 이후 한 달여 간 검출한계치를 단 한 차례만 초과했던 이전 추이에 비해 이례적인 현상이다.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바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해진다면 인근 어민들이나 인접 국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중수소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물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2023년 10월 11일)는 '후쿠시마 활어차, 우리 부두에 1.7만t 방류…"오염수 무방비 반입"'이란 보도를 했다.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지난해 200회 가까이 부산항에 입항해 약 1만 7천톤의 해류를 부두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방류 전 검사 핵종 세슘137 단 한 개 종류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대상 핵종을 30개로 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완전 차단했다. 헤럴드경제(2023년 10월 19일)는 '오염수 방류 후폭풍에 우는 日 어업…中수출 9월 전무'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일본 NHK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9월 무역통계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71억엔(약 7,900억원)이었다. 러시아 정부도 10월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고 한다.

앞으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전개될까? 향후 일본은 해양투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자료도 검출한계치 이하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갈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제기는 커녕 일본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안전'을 홍보하는 일이 이 정권에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의 대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중지 요구와 오염수 방류를 묵인 방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수위는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 핵오염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문제점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10

여 년 경과 불구 폐로계획 불명확(다핵종 총량 불투명,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외 무단방류 존재, 폐로기간 50~100년 연장 우려) △2년 전 일본 해양투기계획 발표불구 국내외 대응체계 부재(반감기 고려 대형탱크 보관 대안 불고려, 일본 국내 어민과의 약속 파기) △알프스시스템 안전성 점검 비판 부재(삼중수소 탄소14 그대로 방출, 다핵종기준치 이하 객관적 확인 곤란, 알프스 고장 및 운영시스템 투명성 부족)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일본 정부 맞추기 의혹(사전 해양방류 인정, 환경영향평가 무시, 정당화원칙 무시, 국제기구 무력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문제점 제기 포기, 일본 대신 오염수 방류 안전홍보, 문제점 제기 야당 학자에게 괴담선동 운운 괴담정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된 직후의 모습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정치사회적 영향, 외교적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정치사회적 영향은 극단적 여야 대치, 정치가들의 변심, 국내 일부 보수언론의 변절 등으로 여야 대치 따른 국론분열이 지속될 것이다. 관건은 내년 총선 결과이다. 잘못된 현 정부의 '부작위'를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외교적 영향은 유엔, IAEA,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신냉전에 편승한 윤 정부의 외교 입지가 좁은데다 국제해양법 불제소나 태평양연안국 연대 부재 등 사실상 해양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비등할 것이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면에서 심각하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운영체계의 불안 · 불신, 환경영향평가의 부재, 핵종의 생물농축문제 심각, 방사능측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수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비위축이다. 수산 · 가공품의 생산판매 및 해양관광 수요의 격감은 물론, 오염수 대비 국가예산이 급증하고 애써 막아낸 WTO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 같다.

당분간은 현 정부의 수산물 판촉 지원과 아직은 방사능 해류가 한국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2~3년 지나면 소비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활어 조업 및 양식 등 전반적인 수산업 연간 매출액의 50%가 감소한다면 피해액이 4~5조원에 이르고, 해양관광의 경우 국내 연간 매출액 약 30조의 30~50%의 감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세 수산업자의 경우 존폐의 갈림길에 봉착할 것이다. 오염수 대비 국가예산은 어림잡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2월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스트라우메팀의 논문은 삼중수소에 피폭되면 암, 유전자 영향, 기형아,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나무위키). 『삼중수소 위험탐색(Exploring Tritium Dangers)』(2022)은 삼중수소는 임신초기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형성에 대한 일부 유형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에 대한 기피는 심각해질 것이며, 학교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은 유엔해양법 위반 제소이며, 중국처럼 강력한 검역을 실시(전수 조사, 검역범위 농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중국, 러시아 태평양연안국가와 연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 잠정중지와 대안 재고를 요구하고, IAEA와 별도로 이해당사국 공동검증단 파견과 우리나라 소문피해 대응 공동기금 마련 제안이 절실하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염수의 객관적 장기적 조사연구 실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일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30년간 일본의 해양방류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아닌가. 우선 지난 9월 일본 후쿠시마 어민 · 시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류중지 소송의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태국, 필리핀 등 연안국가와 연대해 도쿄전력에 대해 우리 어민들이 별도 소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도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의 국내 지지도와 밑에서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낮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있다. 우리도 윤석열 탄핵이나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단체장이 대통령 · 여당에 방류중지 촉구 요구를 해야 하며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일본대사관 · 영사관 등에 적극 항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검사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게 해야 하고, 공무원 조직만이 아닌 시민과 공동으로 지자체단위의 핵오염수대책위원회 설치 · 운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갑갑한 것은 수산업계이다. 제대로 한다면 정부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중지 요구, 검역 전수조사 요구,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표시 요구, 농수산가공품 수입금지 확대, 수산업계 피해 조사 및 지원대책(긴급경영지원자금 등)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할텐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회수입을 포함한 일본수산물 수입판매 중지 자율결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 업계 퇴출 결의 등 수산업계의 결기가 절실한 때이다. 일본 수산물 · 가공품이 확실히 수입금지돼야 그나마 국내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전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 정부의 오염수 대응 '부작위'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부작위 헌법소송'을 통해 주권자의 의사를 현 정부에 확실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이 없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작위 책임을 물어 윤 정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 역시 이러한 부작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 입장에서 일본과 우리 정부, 국제기구에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시민사회가 시작한 '재팬보이콧' '노재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소비자주권을 적극 발휘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부산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핵발전소

최인화 |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희대의 가공할만한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순간이다. 이로부터 열흘 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3년 전 진주만을 공격하며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우리나라 합천에서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

2차 대전 직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소련과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1949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은 기존의 핵폭탄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된다. 연이어 소련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인 차르봄바를 개발한다. 이러한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이 결국은 인류를 공멸의 길로 내몰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를 파멸의 길로 내몰게 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했으며, 뒤늦게 핵무기 확산 금지와 군축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핵무기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었다.

핵의 평화적 이용? 핵발전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악몽을 더 강력한 핵무기들로 다시 재현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다. 미국, 소련에 이어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핵 보유를 선언하자, 강대국들 사이에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1968년 53개국이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과 북한을 제외한 19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핵보유국은 5개국으로 동결되고,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은 금지되었다. 이후 핵개발의 방향은 핵발전소로 향한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핵발전소를 앞다투어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 영국컴브리아주 콜드홀 발전소를 시작으로 인류의 핵에너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30개가량의 국가들이 핵발전소를 가지게 되었다. 폭발적인 핵분열의 속도를 제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며, 소비 전력의 29.6%를 핵발전소에서 얻는다. 핵발전 비중은 세계 13위를 기록한다. 그러나,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도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

지 않았다. 1979년 3월 28일, 드리마일 2호기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으며, 1986년 4월 체르노빌에 이어 절대 안전을 자부하던 후쿠시마(2011)에서도 노심이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체르노빌의 아이들

부산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소

기장군 장안읍(고리, 효암리)과 울진군 서생면(신암리). 인접한 두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고리1~4호기와 신고리1~6호기이다.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10년을 연장 가동 후 수명 재연장을 시도하다 탈핵 시민운동의 성과로 영구 정지되었으나 해체되지 않은 채 멈춰 있다.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 설계 수명 40년을 만료하고 일시 중단하고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4호기 총 6기가 가동 중이다(신고리 5,6호기 건설 중). 부산, 울산, 양산의 5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 지역에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경 20km 안에는 기장군과 금정구가, 30km 안에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시청이 포함되며, 울산과 양산은 물론이고 김해와 창원도 영향권에 있다. 세계 최대 핵밀집지역 10곳에 대한 다음 자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표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반영하기 이전 자료로 지금은 원자로 개수가 10개로 되었다.

핵발전소 인근 거주인구 자료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반경 30km 이내에 20만의 인구가 거주했던 후쿠시마에 비해 4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은 월등하게 높아

지는 것이다. 핵발전소에 있어서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운영과정의 고장이나 실수, 날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영향 등으로 결코 "0"일 수 없는 핵사고의 위험 하나만으로도 핵발전소는 폐기되어가야 할 시설이다. 부산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안고 있다.

23년 4월, 고리 2호기 수명 만료에 이어 고리 3호기, 4호기가 23년 9월, 24년 8월에 차례로 수명이 만료된다.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폐쇄하기로 되어 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고, 이 발전소들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약화된 시민들의 탈핵운동 역량은 이를 무방비 상태로 맞고 있다.

◆ **초대형 다수호기 부지**(도표 1)

순위	국 가	원 전	원자로 개수	설비용량(MW)	인근 30km반경 인구
1	한국	고리	8	8260	3,410,000
2	캐나다	브루스	8	6700	30,000
3	한국	한울	6	6216	80,000
4	한국	한빛	6	6193	170,000
5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에	6	6000	320,000
6	프랑스	그라블린	6	5706	460,000
7	한국	월성	6	4809	1,300,000
8	중국	진샨	7	4386	1,300,000
9	캐나다	피커링	6	3244	220,000
10	인도	라자스탄	6	1180	460,000

◆ **고리원전 총량적 잠재 리스크 비교**(도표 2)

순 서	한 국 고 리	일 본 후쿠시마	미국 IP (인디언 포인트)
– **호기수**	10 기	6 기	2 기
–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 **30km 내 인구 수(명)**	400 만	20 만	100 만
– **총발전용량 × 인구**	3.9	0.094	0.2
– **후쿠시마 대비**	41 배	1 배	2.1 배

(도표1, 2) 최계 최대의 핵밀집도를 가진 부산(출처: 주간경향 2016.7.12.)

또한, 핵발전소 부지 안 붕산 수조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2만 4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플루토늄을 비롯하여 다양한 핵종의 방사능물질을 고농도로 포함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임시 저장 수조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할 영구 처분장 건설이 오랫동안 숙제가 되어 왔다. 이는 핵발전소 폐쇄의 중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소 폐쇄와 영구처분장 마련의 과제를 풀기는커녕 또 다른 임시 저장 방안으로 건식저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조에 저장된 핵연료를 꺼내어 스테인리스 탱크 속에 담아 건식으로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장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저장 용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주민의 동의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진 채 추진되고 있다.

2030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향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추고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정부, 세계 기업들은 RE100을 서두르고 있는데, 원자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포함시켜 CF100을 주장하는 정부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세계의 흐름을 읽고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부산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평화올레길’을 걸으며 외세가 부산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다

이원규 | 6.15부산본부 사무처장

사실,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포는 여타의 작은 포구마을 중 하나였다. 왜와 가까이 있어서 노략질을 자주 당하는 곳이기는 했지만, 아직 일본이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기에 국경지대나 다름없었지만, 만주, 아라사와 마주보고 있는 북쪽에 비해 중요성이 덜했다.

하지만, 왜국이 대륙을 넘보게 되자, 본격적인 수탈의 장으로 변하게 됐고, 역설적이게도 이 때부터 부산의 존재감은 커지게 됐다. 임진왜란 때는 가장 먼저 침략 당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물자와 자원들이 주

한·영 교류 기념비

로 부산포를 통해 일본으로 실려나갔다.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중국, 서남아시아까지 먹으려 들던 일제에게 부산은 강력한 후방기지였으며, 실제 연합군 공격에 대비해 최후의 항전준비도 이곳에서 다그쳤다.

해방 후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단되자, 후방기지로서 역할은 더욱 강화됐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뿐아니라 3.8선 이북마저 적대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는 그대로 미군이 진주했

신선대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백운포 미군기지

다. 일제가 강탈한 물자들이 빠져나가던 8부두는 미군전용부두가 됐고, 전쟁, 군사물자를 싣고 나르는 통로로 사용했다. 일제가 군수물자를 재어놓던 55보급창은 확장해서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고 벌써 70년이 더 지났다. 강산이 일곱 번 넘게 변했지만, 북,중,러와 적대관계는 여전하고, 이들 미군기지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시민들도 잘 모르는 미군기지들이 여기저기 존재한다. 그리고 그 미군기지들은 첨예한 북미대결 국면에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수시로 입항하는 미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은 그 자체로 한 개의 국가전력과 맞먹는 것이기에 들어 올 때마다 우리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미군이 주둔하는 부산은 초토화될 게 뻔하기에 위기의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2019년에는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세균전부대'가 8부두에 버젓이 운용되고 있는게 폭로되어 분노를 사기도 했다. 부산시민들은 이를 폐쇄하기 위해 주민투표운동을 벌였고,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부산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면서 공론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때 함께 운동을 벌인 단체들이 지난 6월 '미군세균실험실폐쇄 미군기지문제해결 부산대책위'를 출

범시키고 장기적인 대응활동에 들어갔는데, '자주평화올레길'은 미군기지들의 존재와 문제점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까지 제안된 '자주평화올레길'은 감만홈플러스에서 8부두까지 주로 시위 행진코스로 많이 활용했던 '미군 세균실험실 행진길'과 도시고속도로를 기형적으로 틀어놓은 미 55보급창을 한바퀴 도는 '미 55보급창 둘레길', 그리고 백운포 주한 미 해군사령부와 핵전력 기항지를 조망하는 '백운포 자주평화길' 정도가 있다. 현재 미군기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산 정상에 황폐화 된 미군기지 터가 남아있는 '자주평화 장산 등반길'도 있는데, 2020년 장산그린파인레이더 배치를 반대하는 운동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다.

부산지역 자주평화올레길 걷기 안내서

백운포 자주평화길 코스

이 지면을 통해서는 '백운포 자주평화길'을 소개할까 한다. 웬만한 부산토박이들도 잘 모르는 신선대 정상을 오르는 코스인데, 해설시간을 다 포함하면 1시간가량 소요된다. 부산에는 유명한 다섯 개의 대(臺)가 있는데, 해운대, 이기대, 태종대, 몰운대, 그리고 신선대가 그것이다. 신선대는 이 중에 가장 늦게 개발되기도 했고, 군사지역으로 묶여있다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입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되다 보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신선대는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신선이 되어 이 곳에서 노닐다 갔다는 전설이 있고, 산봉우리에 있는 무제등이란 큰 바위에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무제등소공원 주차장에서 신선대를 향해 난 산책길을 10분 정도 걷다보면 멀리 오륙도가 보이는 정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정상방향으로 난 쭉 뻗은 길을 잠시 오르다 보면, 영국 국기, 태극기가 함께 게양된 기념비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인과 조선인이 최초로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나 어쨌다나...

1797년(정조21년) 10월 14일 영국 해군소속인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용당포에 표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쌩뚱맞기 그지없다. 이 때는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릴 때였다. 18세기 말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자,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했던 영국은 미지의 영토까지 조사하고 다녔고, 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868년에 호주를 발견한 영국의 한 대위는 본국에 식민지로 적합하다는 보고를 했고, 이후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헨리호가 용당포에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 만일, 이 땅에 자원들이 풍부했다면, 이들은 분명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용당포에 표착한 헨리호 일행들은 식수와 식량이 필요해 조선관리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지형을 측량하기 위해 직접 신선대 봉우리에 오르는 등 내탐 목적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짧은 시기동안 '조선(CHOSAN)항'이란 이름으로 된 부산포 항박도를 최초로 그렸는가 하면, 26종의 식물명과 우리말 38개 단어를 채록해 가기도 했다. 과연 이들의 이런 정탐행위 그 어디에 기념비를 세울만한 건덕지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여전히 포대 흔적이 남아있고, 영도, 북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11시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는 흰색 2층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주한 미 해군사령부다. 해군사령부에서 바다 쪽으로 쭉 시선을 올리면, 가장 큰 핵 항공모함까지 기항할 수 있는 부두 시설까지 볼 수 있다.

2006년에 완공된 부산 백운포 해군기지에는 본래 한국군들만 주둔했다. 헌데 2007년부터 수시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하더니 2016년부터는 아예 용산에 있던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 미국의 핵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상 백운포를 주한미군 기지화 한 것이다. 주민들을 설득해 어렵게 해군기지를 지어놓고 곧장 미군의 각종 전함들이 입항하는 패턴은 제주도 강정과 닮아있으며, 어쩌면 백운포가 강정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어쩌다가 아름다운 백운포와 신선대는 외세의 핵전력 쉼터가 되어 위기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단 말인가. 여기도 8부두와 미55보급창처럼 100여 년간 동토의 땅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인가.

지난 5월, 백운포 해군기지에 일본의 전범기(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이 기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곳에서 쉬면서 정비하다가 제주 남방 앞 바다에서 윤석열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PSI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분노한 시민사회는 한일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범기 상징물에 페인트 계란을 투척하는 상징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신호로 본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본 자위대까지 한반도 인근에 끌여들여 맹렬하게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백운포에 일본 전범기를 단 자위대함들이 수시로 드나들 것이다. 한반도를 지켜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앞세워 말이다. 1592년 임진왜란때 왜는 동래부사에게 "중국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략을 정당화했고, 조상들을 도륙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묻는다 "북과 중국, 러시아를 정벌하는 길에 앞장서달라".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부산이라는 곳이 세상에 알려지고,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왜국의 침략야욕이 높아지고 현실화 될 때였다.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면 후방기지화를 위해 시민의 권리침해는 물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기도 했다. 신냉전 다극화 질서가 격동하는 지금, 부산이 다시 전쟁준비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바닷가에 세균전부대를 운용하고, 장산꼭대기에는 레이더기지와 미사일이 배치됐으며, 백운포에는 핵전력과 욱일기함이 떠다니고 있다. 외세가 주둔하면 필연적으로 대결과 전쟁이 따라온다. 이 땅에 외세가 없다면 진즉 통일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말이다. 부산 백운포에 관광 유람선이 떠다니고, 장산꼭대기에서 주민들이 장산제를 마음껏 지내는 그런 평화세상을 꿈꾸며 "자주평화올레길"이 널리 퍼지길 기원해 본다.

그해 여름 난, 부산민주공원 기록실에서 《부산지역 노동운동사》 집필을 시작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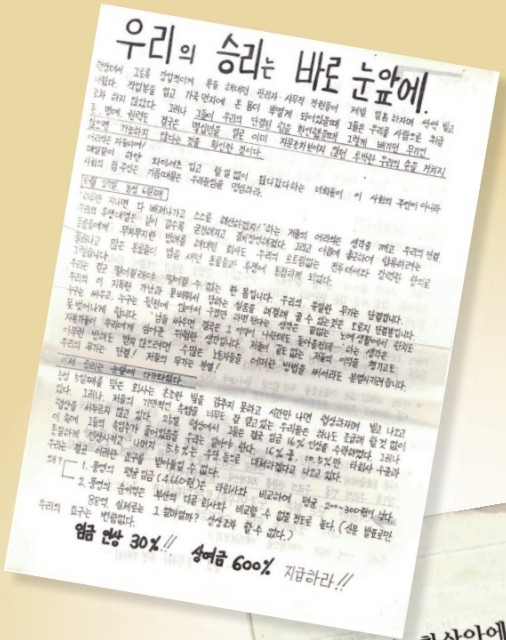
이광수 | 부산외국어대 교수, 만원의연대 운영위원장

'노동 운동사'는 역사학의 한 부문이다. 그런데, 노동 운동사 연구는 역사학자가 아닌 노동 운동 당사자 출신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게 많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도사 전문가인 내가 부산지역의 노동 운동사를 집필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내 주변에 팽배했다. 사실, 역사학자란 사료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분석할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어떤 분야든 그 역사 재구성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도사 전공자가 중국사나 유럽사를 연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료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료의 언어 문제도 있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도사 전공자이지만,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 현대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분명 그와 다르다. 한국 현대사에 조예가 있고 사료를 다룰 수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인도사 전공자인 내가 부산지역 노동 운동사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들의 우려와 진심 어린 걱정에도 난, '노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갖춘 비(非)노동 진영의 역사학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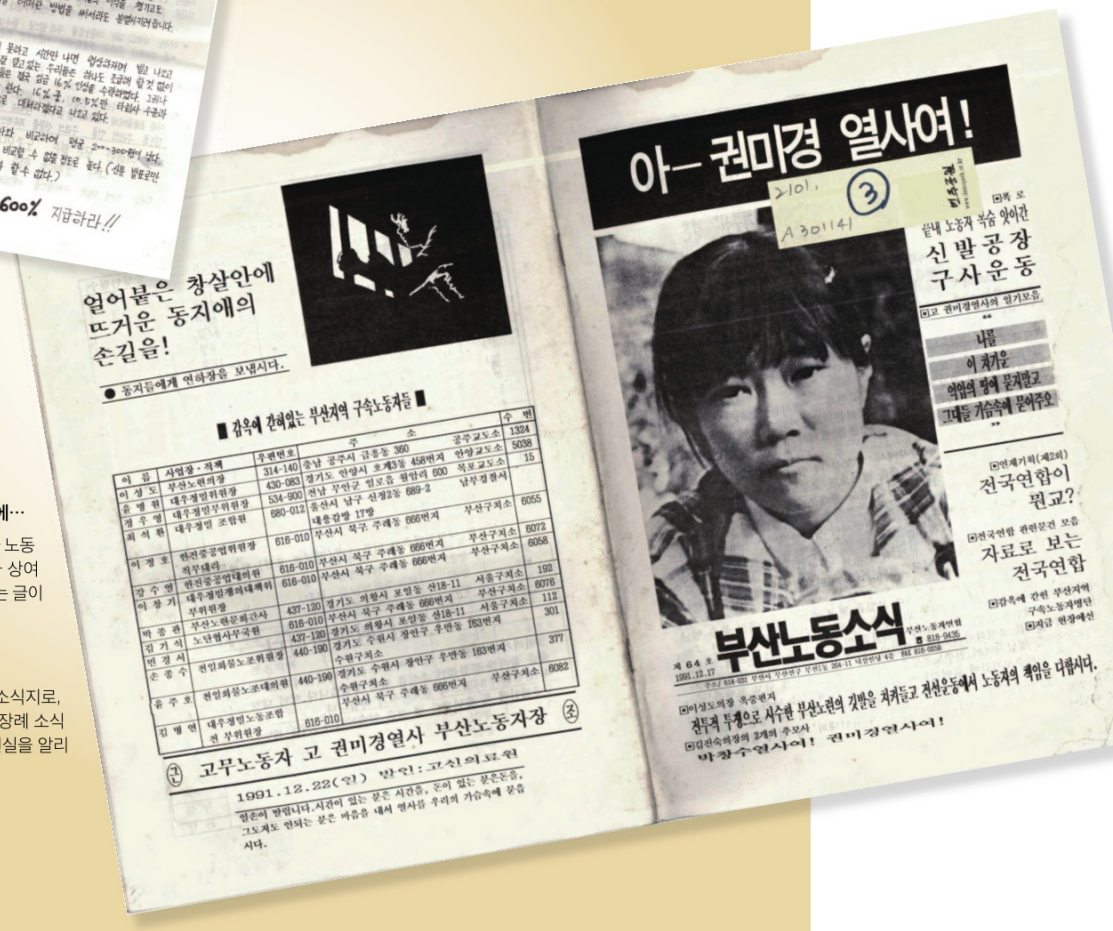
노동 운동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나에게 가장 심각하고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모든 역사 재구성을 하는 역사학자가 겪어야 하는 사료에 관한 문제였다. 우선, 부산지역의 노동 운동사 집필을 당시 노동 운동 당사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자로서 그 '노동 밖'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의 문제가 있었고, 다음으로 사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렵게 구한 사료가 당시의 상황을 다 말해 줄 수 없는 그 비어 있는 시공을 메꾸고 이어주는 '구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학자의 몫이고, 역사학자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물론 '노동'과 '역사'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가 나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부산 지역의 노동 운동의 역사 재구성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일에 누군가 선뜻 나서지 않은 상태에, 그냥 내가 나서는 게 이대로 시간을 묵혀 보내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개인적 욕심이 난 것도 있었다. 나는, '지방'의 대학에서 근무한 역사학자는 자기 전공 이외에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그 지역사회에 내놓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난, 아무 연고 없는 부산으로 이주하여 30년 넘게 제자 가르치고, 동지들과 사회 활동하고, 학문 교류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내 장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친 부산 지역의 역사를 써보고 싶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한 가지다. 부산 지역의 어떤

역사를 쓸 것인가?

난, 1979년 재수해서 들어간 그 암울한 후기 대학에서 소위 '언더서클'에서 학습하고, 야학에 다니다가 어느 날 교수가 되고 싶어서 유학 가겠노라고 선언한 뒤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인도로 유학을 떠났고, 다녀와서 교수로 편안한 생활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부채 의식이 밀려 들어왔다. 그동안 부산의 지역사회에서 교수로서 민교협, 교수노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사회 정치 운동을 해왔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언필칭 진보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면, 역사학자로서 이 지역의 노동운동사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부산에서의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진보 사회 정치 운동하면서 여러 동지를 만났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주파 쪽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따뜻하고 소탈한 성격에 반했는데, 뭔가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 때문에 그 좋은 동지들과 관계가 이내 소원해지면


우리의 승리는 바로 눈앞에

임금 인상 30%// 상여금 600% 지급하라!//


얼어붙은 창살안에 뜨거운 동지애의 손길을!

● 동지들에게 연하장을 보냅시다.

▮ 감옥에 갇혀있는 부산지역 구속노동자들 ▮

이 름	사업장·직책	우편번호	주 소	수 번
이 정 도	부산노련의장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360 공주교도소	1334
윤 영 원	대우정밀위원장	430-083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안양교도소	5038
정 우 영	대우정밀부위원장	534-9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목포교도소	15
최 석 환	대우정밀 조합원	680-012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89-2 남부경찰서	
이 경 호	한진중공업위원장 직무대리	616-010	대통감방 17방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번지 부산구치소	6055
강 수 생	한진중공업대의원	616-010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번지 부산구치소	6072
이 창 기	대우정밀개의대표위원 부위원장	616-010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번지 부산구치소	6058
박 종 관	부산노련문화선사	437-1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8-11 서울구치소	192
김 기 식	노련협사무국원	616-010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번지 부산구치소	6076
변 경 식	전임해원노조위원장	437-1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8-11 서울구치소	112
손 종 수	전임해원노조위원장	440-1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63번지 수원구치소	301
윤 주 호	전임해원노조대의원	440-1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63번지 수원구치소	377
김 병 연	대우정밀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616-010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번지 부산구치소	6082

고무노동자 고 권미경열사 부산노동자장 (2)

1991.12.22(일) 발인: 고신의료원

장은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시간을, 돈이 없는 분은 돈을, 그도저도 안되는 분은 마음을 내서 열사를 우리의 가슴속에 묻읍시다.

아— 권미경 열사여!

부산노동소식

전국연합이 뭔교?

자료로 보는 전국연합

박창수열사여! 권미경열사여!

▲ **우리의 승리는 바로 눈 앞에…**

풍영 노조민주화투쟁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단결하여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이뤄내자고 호소하는 글이다.

▶ **부산노동소식 제64호**

부산노동자연합에서 생산한 소식지로, 투신한 고무노동자 권미경의 장례 소식과 함께 공장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알리고 있다.

서 결국 분당 이후 다시 찾는 일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진보신당과 정의당 활동을 하면서 평등파 쪽 사람들과 '동지'라 부르며 많은 교분을 쌓았으나, 대중에 대해 뾰족한 위치 서기를 즐기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결국, 결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내 주변에는 주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20년 이상 몸담은 시민단체 '이주민과 함께'에서도, 그렇고, '해고자생계비지원을 위한 부산지역사회연대기금 만원의연대'에서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함께 가는 벗들의 모임 '선선산악회'에서도 그랬다. 대부분 내 주변에는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선선산악회 동지들과 산에 가면 몇 시간 동안 산행하면서 탄식과 웃음과 아쉬움으로 버무려진 데다 뒤섞인 기억으로 편집된 그 왕년의 노동운동 무용담을 자주 들었다. 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전혀 모르니 흥미는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답답해했고, 그러다가 그 철 지난 '무용담'들을 엮어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책이 다루는 시기의 부산지역 노동운동사 연구는 87년 대투쟁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책 몇 권이 있을 뿐, 주요 시기를 전체적으로 개괄한 역사서는 없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울산이나 마산 · 창원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전북, 경북, 대전 지역에서의 노동운동에 관해서도, 노동 운동사 개괄서는 그 형식과 시각 혹은 분석의 수준은 차이가 있더라도, 정리된 것이 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 관한 노동운동사 연구물은 없다. 부산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대체로 1987년 이후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연구 수는 압도적으로 적다. 왜 부산지역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기간에 부산지역의 노동운동에 대한 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 신문을 비롯한 공공성이 강하거나 언론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는 대부분이 국가나 자본의 입장에서 쓰인 것이라서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도 많고, 많은 부분은 아예 다뤄지지 않거나 누락 된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 두 번째 부류의 자료를 통해 보충하거나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자료는 노동 당사자들의 주장을 담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기관지, 노보, 유인물 등이다. 이들 자료 또한 모두 그들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크로스-체크를 해야 할 것들이다. 이 두 가지로 이 지역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혹시 가능하다면, 팩트(fact)의 나열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 재구성을 팩트의 나열로 할 수는 없다. 그 사이 사이에 해석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역사 재구성이다.

이 기간 특히 초기에 활동했던 많은 노동운동가들은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지금 남은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끝없이 거처를 옮겨야 했고, 수시로 자신들의 기록을 파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다. 그래서 사료가 남지 않은 상황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구술사의 방법이다. 구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유실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당시에 말할 수 없던 상황을 밝혀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구술은 열린 질문과 자유로운 대답으로 진행되었다. 열린 질문은 구술자가 자신의 삶을 서사로 구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질문에 따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구술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감성과 느낌 등으로 기억의 흐름 속에서 구술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위치에서 이성적으로 사실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술 방법은 30년이 넘은 과거의 팩트를 알고자 하거나 그를 통한 양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술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행위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기억하는 것에 따라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다. 1차 사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구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구술은 기억의 소산이고, 기억은 팩트가 아닌 해석과 관련되는 매체다. 구술은 최소한의 팩트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역사 재구성에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여러 형태로 남

저는 (주)풍영에서 쫓겨난 강앵자입니다.
저는 어제껏 풍영은 것이 전이 되고 없어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돌고
이어는 제 조에의 이장상들이 우이해서 늦게나마 에주고는 생각에서
최저·연·기·에서 이글하고자 이 이났습니다.
제가 강앵을 이어게 된 것을 솔직히 갔으로의 이 상에서 대한 권리
조이는 우에이 목표이기 하고 고른 그 이장생들을 돌에 이었, 모드게
생각이는 부드이를 에른이었습니다.
그같게 이상은 지의 이장 생활는 이에게 조금이나이 이에이이 부드합게
이게잘된 지의 권고 게이른 은이 우고의 권도 다 이장스럽고 정었하이는
건을 합게 되었습니다.
이이만 지의 생각이 공감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상하게 되었고, 을에
있을 인상주의 신입수업 30은 이미급은의 지급을 요구 이었습니다.
이이는 요구가 우이를 에른 이급이 당한한 것이었이면 이장보드도서는
그이었도 계산고 이것이이었던 조업입니다. • 30은을 돌이었이는 진입서들
댔이는 이유 이이도 저는 그은 회사에서 같은 고조를 당한을 에 와장한
수업으로 사장을 것도 당하고 4년 이상을 이었던 회사에서 돌게났을 니다.
우이의 요구가 이루이 진입이이라은 이이만 주업을 이게이는 지의들이
너무나 개인것이 있고 에른것이 되이고 에보이고 있을 마을이고 했습니다.

▲ 저는 (주)풍영에서 쫓겨난 강앵자입니다

강앵자는 풍영에서 연장수당 30분의 미지급분을 요구하다 사직을 당했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동부와 경찰을 고발하는 글이다.

▶ 북구노동자신문 창간준비2호

북구노동자 신문 준비에 대한 평가 좌담회 진행 소식, 극동금속 신임위원장 인터뷰, 북구의 노동계 소식 등이 실린 소식지이다.

3462.
A2003382

북구노동자신문

지면 안내
▷1면 북구노동자 평가 좌담회 열려 ▷2면 산악회를 찾아서...
▷3면 극동금속 신임위원장 인터뷰 ▷4면 북구/노동계 소식

창간준비 2호/발행일:1993년 9월 15일/발행인: 김찬열
연락처: 북구 모라동 647-9번지 ☎302-9844/328-9513

『북구노동자』 평가 좌담회 열려...

일시 : 1993년 8월 30일
장소 : 루른치과 상담실

사회자) 이승영 가톨릭노동상담소 기획실장
참석자) 고려용접봉 김희근 위원장
동신유압 김종안 위원장
대명공업 이희문 위원장
형진공업 이종동 위원장
루른치과 김찬열 원장

지난 8월 30일(월) 루른치과 상담실에서 '『북구노동자(가칭)』신문 준비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가톨릭노동상담소 기획실장의 사회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좌담회는 사회자가 신문을 만들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 좌담회는 준비호에 대한 필자와 이후의 신문이 진정 노동조합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기사내용과 편집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진행순서는 먼저 준비호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과 소감을 말하고, 다음으로 준비호의 편집방향과 기사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고려용접봉 김위원장은 준비호를 평가하면서 "우선 북구지역 노동자를 위한 신문 제작에 애쓰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앞으로 〈북구노동자신문이 북구지역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활하는 노동자와 함께 빛을 보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편집에 대해서는 글자가 번지고 인쇄가 불량한 점, 지면의 단순함과 내용의 미흡함 등 상세한 지적을 하였다. 이어서 대명공업 이위원장은 "글자와 사진 등 인쇄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말했으며 형진공업 이위원장은 "이 신문을 매개로 많은 조합원이 글을 쓰는 것에 친숙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신문이어야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리고 동신유압 김위원장은 "부수 제한으로 많은 조합원이 돌려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편집에 대해서는 "내용이 단순미흡하며 한 기사가 지면 할애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평가는 의미있고 좋은 신문이라는 것과 기획 편집의 미숙함에 대해 지적하였다"

신문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회자가 4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첫째 인물발굴에 힘쓴다. 둘째 생활상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생활문화 정보를 싣는다. 셋째 노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한다. 넷째 기획기사를 싣는다. 그 달의 주요기사를 기획하여 1면에 싣는다.

현 신문 제작팀의 기획에 대해 고려용접봉 김위원장은 "신문 제호에 대해서는 〈북구노동자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을 내놓고, 생활실반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생활문화 정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또한 "인물발굴에서는 조합원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조합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합탐방 기사에 대해서 "지역 사업장의 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 사업장의 씨를을 동시에 소개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신유압의 김위원장은 "다양하고 알차며 참신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많은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신문 부수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대명공업과 형진공업 위원장은 현 기획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기사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문 제작에 필요한 편집위원과 기사확보의 문제에 관하여 신문발행인 김찬열 원장님(루른치과)의 협조 요청이 있자 고려용접봉 김위원장은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 북구협의회론 아니라 그의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고려용접봉 김위원장은 마지막 당부라고 덧붙이면서 신문에 임하는 기획 편집팀의 자세에 대해, "신문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으로 가진 이번 좌담회는 참석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제작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음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동아금속, 쟁의발생 신고

현재 단체협약이 진행중인 동아금속 이규보 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을 들어보았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 현재 단체협약 시기는...

원래는 92년이었으나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93년으로 연기하자고 요청해와 노조측과 합의하여 연기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체협약을 2년마다 임금협상과 분리하여 협상하였으나,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시기를 1년으로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상여금 80%인상, 학자금 1인 1자녀에 지급(중 10만원, 고 20만원), 하계휴가 3일에서 4일로, 유니온샵 도입, 징계권 노사동수 참여 등이다.

☞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

1차 협상을 지난 7월 13일 시작하여 현재 6차 협상(9월 3일)을 끝낸 상태다.

☞ 노조의 요구를 회사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회사측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구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한다.

☞ 말으로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노동조합은 권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현재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참석률은 100%이며 좋은 편.

☞ 북구금속협의회 소속조합으로서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북구금속협의회 위원장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현재로서는 바라는 바는 없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난 6월항쟁으로 따낸 민주화 조치인 6.29선언이 말에 그치게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긴 1차 사료다. 부산 지역의 노동 운동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료를 보관하는 곳이 민주공원이다. 여기에는 노동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남긴 그들만의 시각으로 점철된 여러 유인물이나 노보 등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그 운동을 기록한 신문 자료도 중요한 사료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논평이나 연구물을 담은 저널도 있다. 이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보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산의 민주공원은 그동안 부산 지역의 여러 단체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해왔다. 그 보관실에 비좁아 이제 독립된 부속 건물을 세워 기록관으로 삼는다니 이보다 더 반가울 일이 없다.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다. 기록관에 틀어박혀 부산 지역의 또 다른 어느 한 역사를 집필하고 싶은 생각이 스친다.

사료소장_(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사랑방

민주공원 신임관장 선출

이동일 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11월 15일(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임시이사회에서 10기 부산민주공원 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겸직합니다. 이동일 신임 관장은 2007년 민주공원 학술사료 과장으로 입사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을 역임, 2018년부터 민주공원을 부산시부터 수탁하고 있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사무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개관 25주년, 부속건물(기록관) 건립 등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공원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계승과 혁신의 자세로 새 단계를 맞이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국내기관 워크숍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은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국내기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주최로 창원 일대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마산 지역 중심지였던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4・19혁명의 불을 당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인양지, 창원민주주의전당 건립부지 등 민주화 관련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단체 상견례를 하고 사업분야별로 모여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연대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열사 유족 방문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민주열사의 유족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 박영옥 님, 황보영국 열사의 아버지 황보문수 님, 박종철 열사의 고모 박정애 님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전보다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커져 매주 2번씩 병원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또 항쟁 기념행사 때마다 뵈면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임직원들은 무엇보다 열사 유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바랍니다. 박정애 고모님께서 지난 명절 때 드린 곶감을 상에 올리며 “이거 종철이가 주는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박영옥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없어도 본인에겐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다며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보듬어주셨습니다.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족들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은 물론 모든 시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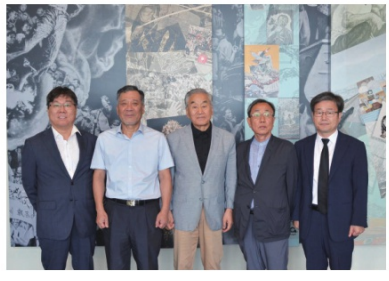
비춤마당, 세상 속으로 새단장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내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중 비춤마당과 세상 속으로 부분을 새단장했습니다. 민중가요를 듣고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었던 비춤마당은 민주주의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비추는 곳(어린이체험존)이자 과거를 비추고 내일을 맞이하는 곳(영상실)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늘펼쳐보임방에서 출입구로 나가는 복도인 세상 속으로는 촛불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곳으로 꾸며 민주주의 주인은 우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공원, 과거를 밝게 비추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겠습니다.

4 · 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제작발표회

4 · 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제작발표회가 7월 28일(금) 오전 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열사를 기리는 넋기림마당(추념의 장)에서 주요 아리아 3곡을 부르고, 중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제작발표회를 이어갔습니다. 제주4 · 3의 진상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을 창작오페라로 만든 이번 공연은 4 · 3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전국 순회 공연으로는 세 번째로 열리는 부산 초연 공연은 8월 19일(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방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신임 이사장이 8월 17일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참배와 헌화를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의 넋이 살아 숨쉬는 이곳 영원하라!"라고 남겼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광호 부이사장, 김종기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 안승운 민주시민상 운영위원장과 함께 차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3 민주공원 생활예술문화축전

11월 4일(토) 오후 3시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생활예술문화축전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청년 예술 동아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예술제로 올해는 온새미학교 풍물패, 소노러스, 매니아, M.A.P, 유어뮤즈, 신바람 응원단 등 총 6팀의 동아리가 참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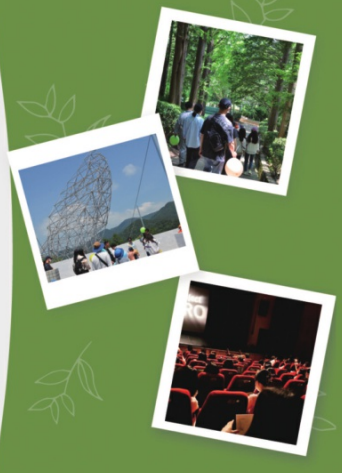
❀ ❀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 ·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 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 051-790-7473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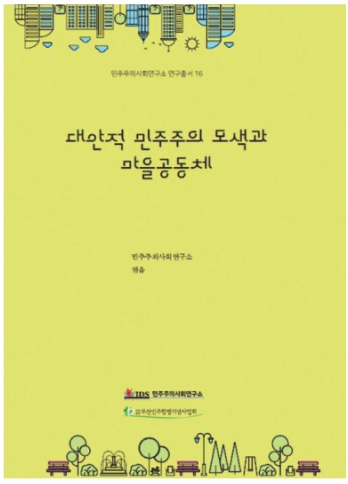
- 가정용 반려화분 세트 택배 발송
-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IDS 민주주의사회연구소

Institute for Democratic Society

— 문의 www.facebook.com/groups/IDSDEMO | ☎ 051) 790-7482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16)' 출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16)'를 출판했습니다. 이번 출판물은 지난 6월에 개최된 '대안적 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의 성과물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겪으며 극심하게 드러난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복합위기' 또는 '중층적 위기'로 규정하고,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이를 성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술 심포지엄 주제와 같은 제목으로 묶은 이번 연구총서 『대안적 민주주의 모색과 마을공동체』는 위기에 대한 성찰에서 한 발 나아가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을 전망하는 첫 번째 기획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문의 www.narak.kr | ☎ 051) 463-2240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창립총회 개최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입니다. 나락한알은 사단법인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회원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가오는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노티스 카페**(중앙역2번출구 근처)에서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창립총회〉를 실시합니다!

회원님 모두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락한알이 궁금하신 분들도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맛있는 다과와 재밌는 문화 예술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공원

— 문의 demopark.or.kr | ☎ 051) 790-7400

2023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11월 30일(목)에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합니다.

체험프로그램 〈민주공원 11월 숲체험〉

11월 늦가을, 민주공원 숲마을에 놀러 오세요! 낙엽이 진 민주공원 장승터에서 '솔방울 던지기' 운동을 하고 다 함께 민주항쟁기념관 늘펼쳐보임방 비췸마당으로 이동해서 친구들이랑 작고 소중한, 귀여운 나만의 '솔방울 미니트리'를 만들어 보아요.

- **운영 기간** : 2023년 11월 ~ 솔방울 소진 시까지
- **운영 시간** : 10:00 / 11:00 / 13:00 / 14:00

2024년도 부산민주공원 공연장 · 전시실 정기대관 분기별 변경 안내

부산민주공원 공연장 · 전시실 정기대관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공연장과 전시실을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기대관 절차

- **신청기간** : 대관이 있는 달의 2개월 전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예 : 10월 ○일 대관 희망 시, 8월 1~10일 사이에 접수)
- **신청방법** : 민주공원 홈페이지 대관 메뉴에서 관련 정보 입력을 통해 접수
- **승인결과** : 접수 마감 후 대관심사위원회를 거쳐 2~3일 내에 승인 여부 통보

변경 정기대관 시기

구 분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024년 1~3월	**2024년 4~6월**	**2024년 7~9월**	**2024년 10~12월**
대관 접수 기간 분기 2개월 전 달(月) 1~10일	2023년 **11월 1~10일**	2024년 **2월 1~10일**	2024년 **5월 1~10일**	2024년 **8월 1~10일**
정기대관 공지 분기 3개월 전 달(月) 말일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2024년 **4월 말**	2024년 **7월 말**
대관 심사일 분기 2개월 전 달(月) 20일	2023년 **11월 20일**	2024년 **2월 20일**	2024년 **5월 20일**	2024년 **8월 20일**
승인여부 통보	**대관 심사 7일 후**			

〈생각, 한 컷〉은 한 호 쉬어갑니다.

“

미래는 전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

– 26쪽